

『記聞叢話』에 나타난 科學談의 양상과 특징*

이미진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eemijin@korea.ac.kr

1. 들어가는 말
2. 『記聞叢話』에 나타난 科學談의 양상
3. 『記聞叢話』에 나타난 科學談의 특징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과거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련 자료가 실린 다양한 문헌을 살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특정 야담에 나타난 과거담에 집중하기로 한다. 조선 후기에 편저된 것으로 알려진 『記聞叢話』는 야담 중에서도 담화 수가 가장 많고, 넓은 범위의 야담을 집대성하여 야담에 나타난 과거담의 전모를 살피기에 유리하였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총 70편이다. 이는 주로 15~17세기 수험생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였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일화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일화다. 『記聞叢話』에서는 사회 제도가 악용된 사례와 당대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일화가 실렸지만 그 수가 극히 적었다. 19세기에 편저되었으리라 추정되는 『記聞叢話』는 당대 과폐를 고발하여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기보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22S1A5C2A02093644), 2023년 한자한문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과폐를 통해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고 당시 시관의 안목과 청렴함을 부각시키는 일화가 많다. 즉,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사회 비판보다는 과거제 운용의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교훈성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보여주는 일화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꿈속에서 합격자의 이름을 예언하거나, 과거 합격을 가리키는 동물이 등장한다. 야담에서의 기이성은 그것 자체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이미 과거에 합격한 실존 인물과 관련된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서술하여 그 인물의 현달함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셋째, 장원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을 보여주는 일화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이 되면 남들보다 일찍 요직에 오를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나 가문으로서 명망이 높아졌다. 따라서 장원한 사람들끼리 정 기적으로 계모임을 갖거나, 2등을 하여 평생 아쉬움을 드러내는 일은 당대 분위기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는 이러한 일화가 조선 전기를 배경으로 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거나 서사의 긴장감과 흥미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별시로 인재를 뽑는 경우가 많아져 조선 전기보다 장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記聞叢話』에 등장한 장원과 관련한 일화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특권계층에 편입되고픈 당대 사람들의 열망과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주제어】 기문총화, 야담, 과거담, 과거제도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科擧 연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졌고,¹⁾ 2000년대 이후에도 조선시대 인재 선발에서 문장력이 핵심 능력이었다는 인식 아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科試의 출제 경향, 수험서, 답안의 문체별 특징 등

1) 허홍식(1981); 조좌호(1996); 이성무(2004); 박현순(2014).

다양한 연구가 제출되었다.²⁾ 그러나 과거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야담에서의 과거담 연구는 소략하다.

과거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련 자료가 실린 다양한 문헌을 살펴야 한다. 법령집은 과거 제도의 연혁을, 榜目은 과거 합격자의 사실 여부를, 수험서는 당대 과시 문제의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과거의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 제도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방법 중에는, 과거 제도를 둘러싼 儒生들의 경험의 세세하게 기록된 필기체 산문을 살펴보는 것이 있다.³⁾ 필기체 산문에는 과거 관련 사실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과거 제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⁴⁾

일단, 일기에 나타난 특정인의 수험 생활을 통해 당대 과거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연구들이 제출되었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인물의 개별적인 과거 경험을 파악하는 데에 치중했다. 결과적으로 응시자 입장에서 과거의 사회 및 정치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별자의 과거 체험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응시자 및 과거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된 삶을 읽어낼 필요도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담이다. 관련 연구들은 과거담을 통해 당대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다.⁶⁾ 그러나 특정 야담

2) 강석중(1999); 이상욱(2015; 2022a; 2022b); 윤선영(2019); 김광년(2020; 2022); 박선이(2020; 2021; 2022); 김경(2021a; 2021b); 김동석(2021); 노요한 외 3인(2022).

3) 여기서 말하는 필기체 산문이란 漫錄·隨筆·雜錄·稗說·日記 등 각종 내용과 형식의 소품과 고사를 자잘하게 기록하여 成冊해서 전하는 글을 말한다. 야담도 포함한다. 진필상 저, 심경호 역(2001), 130면; 심경호(2013), 365면.

4) 심경호는 필기체 산문에 과거 관련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 뒤, 과거 관련 내용이 다양한 문헌에 편재되어있다는 것은 향후 과거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경호(2020), 10면.

5) 전경목(2007); 최은주(2013); 차미희(2013).

집만을 통해 조선시대 과거의 실상과 문화의 전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세기에 집성된 『記聞叢話』에 실린 과거담을 살펴보기로 한다.

『記聞叢話』는 조선후기 야담집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담화가 실렸으며,⁷⁾ 또 『於野談』과 『芝峯類說』을 비롯한 59권의 필기·야담에 실린 담화를 취사하여 실었다. 이처럼 『記聞叢話』는 넓은 범위의 야담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야담에 나타난 과거담의 전모를 살피기에 유리하다.⁸⁾ 그러나 편저자 미상이라는 이유로, 그간 『記聞叢話』 연구는 다른 야담집과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에 치중되어왔다.⁹⁾ 본고에서는 한국 야담 속 과거담의 전체적인 양상과 특징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간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記聞叢

6) 권기성(2019); 이병직(2013); 임완혁(2013); 김경(2022).

7) 2016년도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조선후기 야담집의 교감 및 정보화’ 사업의 최종결과물인 『정본 한국 야담전집』을 보면, 조선후기 야담집 중에서도 『記聞叢話』가 638건의 가장 많은 담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환국 책임교열(2021a). 참조.

8) 『記聞叢話』에 실린 담화는 『於野談』(29)·『菊堂俳語』(18)·『慵齋叢話』(16)·『芝峯類說』(12)·『公私見聞錄』(11)·『筆苑雜記』(11)·『寄齋雜記』(8)·『閑居漫錄』(7)·『思齋撫言』(6)·『五山說林』(6)·『青坡劇談』(6)·『巴人識小錄』(6)·『涪溪記聞』(4)·『謏聞瑣錄』(4)·『松窩雜說』(4)·『太平閑語』(4)·『破閑雜說』(4)·『玄湖瑣談』(4)·『晦隱雜識』(4)·『東閣雜記』(3)·『龍泉談寂記』(3)·『愚齋雜記』(3)·『終南叢志』(3)·『竹窓閑話』(3)·『秋江冷話』(3)·『南溪集』(2)·『東平閑見錄』(2)·『補閑集』(2)·『西厓雜錄』(2)·『松溪漫錄』(2)·『水村漫錄』(2)·『識小錄』(2)·『破閑雜話』(2)·『閑溪漫錄』(2)·『壺谷詩話』(2)·『鯨鱗瑣語』(2)·『露湖詩話』(1)·『東岡雜記』(1)·『東人詩話』(1)·『東平感異錄』(1)·『夢芸雜記』(1)·『白雲小說』(1)·『補閑集說』(1)·『神將雜記』(1)·『石崖雜記』(1)·『疎齋集』(1)·『續古今笑叢』(1)·『松江冷話』(1)·『完山志』(1)·『月汀漫錄』(1)·『紫海筆談』(1)·『清江笑叢』(1)·『青樓別談』(1)·『破閑新話』(1)·『稗官雜記』(1)·『荷潭破寂錄』(1)·『閑溪漫錄』(1)·『檜山雜記』(1)·『晦軒雜錄』(1) 등에 실린 담화에서 발췌하여 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조선후기 야담집인 『溪西雜錄』·『溪西野談』·『海東奇話』·『梅翁閑錄』 등의 담화와도 상당부분 겹친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발췌한 담화의 수이다.

9) 『기문총화』에 실린 담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동욱(1998); 황인순(2013).

話』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과거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記聞叢話』 편저자의 담화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2. 『記聞叢話』에 나타난 科擧談의 양상

『記聞叢話』는 정확한 편저자와 편저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1833년 李義平(1772~1839)이 편저한 『溪西雜錄』과 편저자 미상의 『溪西野譚』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記聞叢話』는 1833년과 1869년 사이에 편저되었으리라 추정된다.¹⁰⁾ 『記聞叢話』는 연세대본을 비롯하여 가람문고본·이동기문본·버클리대본·동양문고본·천리대본·국립중앙도서관본 등 27여 종의 이본이 있다. 본고에서는 연세대본 4책을 저본으로 하여 정본화한 『정본한국 야담전집 6』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¹¹⁾

『記聞叢話』에 나타난 과거담은 총 70편이다.¹²⁾ 이는 『記聞叢話』 소재 총 638화 중 약 10%에 해당하므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담 70편에 나타난 인물과 정보를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김준형(1997)은 『계서잡록』, 『기문총화』, 『계서야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기문총화』와 『계서잡록』간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134편, 『기문총화』와 『계서야담』간의 중복되는 이야기는 280편, 세 야담집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104편임을 밝혔다.

11) 정환국 책임교열(2021b). 참조.

12) 본고에서 말하는 ‘과거담’이란, 과거 시험 및 제도를 주요 사건으로 한 담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이라거나, 과거 응시 전후에 생겨난 일 등을 말한다.

〈표1〉『記聞叢話』 소재 과거담 70편

연번	작품번호	등장인물	시기 배경	내용	분류
1	9	無名	1592	부당한 방법으로 과거에 급제한 영남 사람을 비판함	사회비판
2	12	권필, 임숙영	1611	임숙영의 답안이 신랄하여 과거 급제 명단에서 빠지자, 권필이 이를 풍자함	사회비판
3	20	박순, 노수신, 정유길, 정철, 심수경	1585	장원급제 출신 5명이 '政府龍頭會轡'이라는契를 만들	과거 문화
4	26	이호민	1579~1584 전후	기이한 일을 경험한 후 문과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5	41	김홍도	1524~1558	'歸甲'이라는 이름 덕분에 장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	45	심액	1651~1655	장수를 누리고 자손들도 번창함	과거 문화
7	54	박충간	16세기 후반	응시장에서 시험지의 제목을 바꾸어달라고 함	과거 문화
8	60	성여신, 김태시, 백현룡	1616 이후	70대가 넘어서 과거에 응시함	과거 문화
9	75	신숙주	1439	청의동자의 도움으로 장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10	102	김명원	1561	남의 첩이 된 기생을 사랑한 김명원이 대과에 급제하여 첩을 데리고 옴	과거 문화
11	113	박지	16세기 후반	18세에 장원 급제함	과거 문화
12	127			고려 및 조선시대의 封彌法	과거 문화
13	128	이석형, 신종호, 이승소, 권남, 윤기, 이이	1441~1558	세 번 이상 장원 급제한 사람들	과거 문화
14	129	권남, 김수광	1450	세 번 모두 장원한 권남, 세 번 모두 말석한 김수광	과거 문화
15	130	김안국	1503	2등으로 급제한 것을 아쉬워함	과거 문화
16	131	김일손, 남곤	1494	2등으로 급제함	과거 문화
17	132	이명환, 정홍	1616~16	응시장에서 혐의를 피함	과거 문화

		명, 이행원	17		
18	149	채유후, 정두경	1652	시관으로 만난 두 사람의 갈등	과거 문화
19	150	김일손	1494	묘한 재주로 과거에 급제해 처가를 놀라게 함	과거 문화
20	153	손비장	1464	초서를 알아보지 못해 과거에 불합격한 줄 앎	과거 문화
21	184	성종	1457~1495	성종이 50세가 넘도록 급제하지 못한 유생을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함	과거 문화
22	185	성종	1457~1495	과거에 급제하고 싶어서 집 남쪽에 나무를 심음	과거 문화
23	186	성종	1457~1495	석회장수 이석에게 기회를 주어 과거에 급제하게 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24	205	無名	1686 이후	은혜를 베풀어 과거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25	217	장봉익	1734	가난한 과거 급제자를 지원하여 잔치를 베풀음	과거 문화
26	218	민홍섭	1764	남이 급제하는 꿈을 대신 꾀 문 진사	기이한 체험 및 예언
27	252	無名	미상	한이 있는 여자 귀신이 김공의 앞날을 예언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28	268	이태중, 이덕중	1730	밥을 나눠 먹고 나란히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29	274	윤필병	1767	주막 주인의 꿈대로 과거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30	277	조현명	1719	내시의 처와 정을 통한 뒤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31	290	심희수	1548~1622	일타홍의 내조로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32	295	정운	1610	계집종의 원한을 갚아주고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33	299	허홍	미상	농사를 지어 형제의 공부를 돕고 본인은 뒤늦게 무과에 급제함	과거 문화
34	302	노진	1546~1578	기생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35	305	無名	미상	기생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36	326	이성징	1662	늦게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37	327	박필위	1699	부정행위로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38	332	권재, 조극관, 권극화, 김돈	1414~14 32	과거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급제하 여 만남	과거 문화
39	347	유영충	16세기 후반	제목에서 벗어난 글을 지음	과거 문화
40	348	이민구, 이여 황, 조휴	17세기 전반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과거에 급제 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41	383	정지상	1114	귀신이 지은 시를 그대로 써서 장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42	412	여성제	1654	시험 문제가 바뀌어 과거에 급제함	과거 문화
43	413	민형남	16세기 후반~16 59	맹인의 예언대로 과거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44	414	박신규	1660 이후	기생의 예언대로 과거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45	417	윤계	1627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46	419	윤순거	17세기 전반	글씨를 정성껏 쓰느라 답안지를 제 출하지 못함	과거 문화
47	423	이정구	17세기 전반	이정구가 비법을 알려주어 과거에 급제한 선비 이야기	과거 문화
48	425	김육	1609~16 23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장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49	426	이상진, 전동 홀	1645	문관 이상진과 무과 전동홀의 우정	과거 문화
50	444	이호민	16세기 후반	과거에 제출한 시를 부끄러워함	과거 문화
51	445	신광필, 한준 겸	1586	문과에 장원한 한준겸을 무인이라 고 속여 신광필을 놀라게 함	과거 문화
52	452	김영달	미상	선녀가 준 먹을 잃어버리자 벼슬이 높아지지 않음	기이한 체험 및 예언
53	458	장순명, 최명 길, 이시백, 장유	1580~16 60	맹인이자 점쟁이인 장순명이 최명 길, 이시백, 장유의 사주를 풀이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54	473	서필원	1648	이조판서의 도움으로 벼슬을 하면	과거 문화

				서 과거에 급제함	
55	474	남구만	1656	과거 급제 후 농담 주고받기	과거 문화
56	496	민덕봉, 구봉령, 정염, 민몽룡, 박지	1560~1584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과거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57	500	정응두	16세기 전반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과거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58	503	이기덕, 이태정	1740	소과와 대과에 급제해 흥패, 백패를 받은 것을 옷놀이에 비유함	과거 문화
59	512	이원익	1569	과거 급제 전, 노승을 따라 선경을 구경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0	520	정이오, 어변갑, 마희성	1408	시관 정이오가 어변갑과 마희성의 급제를 예견하는 꿈을 꿈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1	528	조석윤	1628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장원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2	534	허옥	1572	장모의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과거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3	535	윤지선, 윤지완	1662	종실 처의 꿈에 나타난 예언대로 과거 급제함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4	576	김안국	16세기 전반	문장의 안목이 뛰어남	과거 문화
65	584	김수온	1486	문장의 안목이 뛰어남	과거 문화
66	591	장순손	1504로 추측	고양이길을 따라가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징크스가 있음	과거 문화
67	604	無名	1672	과거 응시장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기로 다짐한 사연	과거 문화
68	609	정경세	1586	異人의 말대로 인생의 부침을 겪음	기이한 체험 및 예언
69	618	채수, 김감	1469	장원 급제한 사람들의 모임	과거 문화
70	633	손비장	1476	기생 자운아에게 시문에 대한 평가를 낮게 받음	과거 문화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 등장 인물은 주로 실존 인물이며, 시대적 배경은 1114년부터 1767년까지 넓은 범위를 가졌지만 주로 15~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27화에서 고려 및 조선시대 封彌法과 과거 제도의 큰 규범을 개략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 인물 및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이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 주요 인물은 수험생과 합격생, 주변인물, 시관이다. 70편 중 50편 이상이 수험생의 과거 준비 중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였다. 나머지는 합격생 혹은 시관 등이 과거 합격 후에 생긴 변화나 과거장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을 일화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일화다. 야담은 전승되는 일화를 기재하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사회상을 풍자한다.¹³⁾ 『記聞叢話』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목을 잘라 바치면 과거에 급제시켜 주는 사회 제도가 악용된 사례를 풍자한다. 또한 1611년에 임숙영이 科文으로 제출한 대책문에서 정치를 풍자하여 과거 급제자 명단에서 탈락된다. 권필은 이를 풍자한 시를 지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 일화는 부당한 현실을 글로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인물을 통해 시대의 부조리함을 풍자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보여주는 일화다. 과거는 오랫동안 공부한 시간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므로 運이 크게 작용하며 시험 합격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도 크다. 그래서 과거 합격과 탈락의 예언이 주변 지인의 꿈속이나 일상에서 기이한 체험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과거와 관련한 당시 문화를 보여주는 일화다. 과거 응시장의 풍경이나 일화, 만학도로서 과거에 뒤늦게 급제한 사연, 장원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 등이다. 이를 통해 당대 과거 시험의 위상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일화의 성격에 따라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자.

13) 예를 들면, 『於野談』에서 유몽인은 사실을 기록할 때 직서하지 않고 일정한 주제의식에 문학적 변용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야담이 이야기의 사실성 이외에도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신익철(2010), 10면.

3. 『記聞叢話』에 나타난 科擧談의 특징

(1)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

야담에서는 당대 실상을 보여주며 사회 문제를 비판한다. 『記聞叢話』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담화는 9화와 12화다.

9화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목을 바치면 무과에 급제시켜주는 사회 제도가 악용된 경우를 제시한다.¹⁴⁾ 이를 통해 과거 급제를 위해서라면 시비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는 『芝峯類說』 권4 「科目」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¹⁵⁾

12화는 1611년 3월에 시행된 殿試에서 광해군이 丙科로 급제 예정인 任叔英(1576~1623)의 이름을 방목에서 삭제하라고 명했던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이 전교는 신하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4개월이 지난 7월 18일이 되어서야 임숙영이 포함된 科榜이 발표되었다.¹⁶⁾ 이후 임숙영이 따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이듬해 3월에 權輶(1569~1612)은 이 사건을 풍자한 시가 발각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¹⁷⁾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신의 사평과, 『記聞叢話』 12화의 출전에 있는 저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記聞叢話』 12화에서는 본 사건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되 별다른 평을 부기하지

14) 『記聞叢話』 권1 9화. “壬辰倭變, 得倭頭一級者, 勿論公私賤許登科, 或有斬飢民頭以要賞者. 嶺南有一斬頭及第縣倅, 設宴以榮之, 人作詩嘲之.”

15) 해당 기사는 『선조실록』과 『亂中雜錄』에 구체적 정황이 보인다. 『선조실록』 선조 27년 갑오(1594) 4월 18일 첫 번째 기사; 『亂中雜錄』 「壬辰 上」 참조

16) 『광해군일기』 광해군 3년 신해(1611) 3월 17일 두 번째 기사; 『광해군일기』 광해군 3년 신해(1611) 7월 18일 첫 번째 기사 참조.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박재경(2013), 149~156면에 자세하다.

17) 『記聞叢話』 권1 12화. “權石洲輶, 善詩歌, 落魄不拘節, 傲世不赴擧. 光海辛亥, 設科策士, 進士任叔英, 所對諷論時政, 言甚切直, 考官懼而不敢棄. 光海親覽大怒, 命拔去榜中, 兩司交爭. 輶有詩云. (중략) 遂未赴謫所而死.”

않았다.¹⁸⁾ 다만, 국왕이 자의적으로 삭과를 명한 일, 이 때문에 시를 짓기던 권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당대 사회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記聞叢話』에서는 과거와 관련해서 당대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일화의 수가 적은 편이다. 예를 들면 『於于野談』에서는 과거제의 문란(331·342·343·348화), 과문의 부적절함(332화), 응시장에서의 부정 행위(340·439화)를 고발했다.¹⁹⁾ 특히 342~343화에서는 신분제에 따른 응시 규제를 비판하고 17세기 서얼 許通에 대해 옹호적인 柳夢寅(1559~1623)의 시각이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16~17세기 서얼 허통 논쟁이 첨예했기 때문이다.²⁰⁾ 이밖에도 『於于野談』에서는 과거 조목에서 六經義보다 四書疑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이것을 짓고 외우는 일이 유생으로서 기개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332화). 또한 조선 후기 과장에서 개구멍, 쥐구멍에다가 교묘하게 커닝페이퍼를 숨겨놓는 일이 있었으며, 유몽인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무리들을 엄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439화). 이를 통해 당대 科弊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18) 이 사건에 대해 사신은 “국가가 망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충직하고 곧은 말을 비방이라고 하여 도리어 엄중히 책망하고 삭제의 벌을 내렸으니, 위태롭고 망하는 화란 이 조석에 닥치더라도 누가 말을 하여 자기 몸을 위태롭게 하겠는가. 이와 같이 하고서 망하지 않는 자는 드무니 통탄을 금할 수 있겠는가[國家喪亡, 其在斯乎? 忠讜之言, 謂之醜詆, 反加嚴責, 罪以削科, 危亡之禍, 迫在朝夕, 其孰言之, 以危其身哉? 如是而不亡者鮮矣, 可勝痛哉]?”라고 말했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3년 신해(1611) 3월 17일 두 번째 기사. 『記聞叢話』 12화의 출전이라고 할 수 있는 『霽湖集』 권9 「詩話」에서도 해당 일화 말미에 “一字之誤, 偶然成讖, 豈不異哉?”라고 서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저자 梁慶遇(1568~?)의 의식을 드러내었다.

19) 『於于野談』의 작품 번호는 만종재본을 저본으로 하여 40여 종의 이본과 비교해서 정본 화한 『정본 한국 야담전집 1』을 토대로 기재하였다. 정환국 책임교열(2021a). 참조.

20) 김경(2022), 268~272면.

그러나 『於于野談』보다 늦은, 19세기에 편저되었으리라 추정되는 『記聞叢話』에서는 과폐의 모습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17세기 이후 과거가 확대 시행되면서 관리상의 허점 및 부작용도 증가했고, 이는 入門 통제의 부실, 科場의 공간 부족, 채점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²¹⁾ 야담이 당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르라면, 과폐가 심각했던 시기에 편저된 『記聞叢話』에도 과폐의 실상이 나오기 마련이다. 『記聞叢話』와 같은 19세기에 편저되었으리라 추정되는 『靑邱野談』에서도 당대 조선 후기 과폐의 일종인 ‘同接’을 통해 요행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는 일화가 나온다(25화).²²⁾ 이와 달리 『記聞叢話』에서는 19세기에 문제시된 과폐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뿐더러, 과폐의 면모가 일부 나오더라도 이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의도로 서술하지 않는다.

과폐를 크게 과거 운용, 준비 단계, 응시 단계, 고열 단계, 방방 단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이 중에서 과폐의 모습이 반영된 『記聞叢話』의 일화를 살펴보자.

- ① 과거 운용: 과거 남설, 자당인 심기, 국왕의 자의적 시취, 응시자 증가
- ② 준비 단계: 시지 압표, 부정 발급(허위/이중), 암호 표시, 무능한 시관, 시제 유출, 부정 입장, 시제 바꿈
- ③ 응시 단계: 협서, 사전 제술, 대작, 훔쳐보기, 커닝 페이지, 공동제술, 대리 시험
- ④ 고열 단계: 시축 바꿈, 자호 바꿈, 제문 수정, 성적 조작

21) 박현순(2014), 89면.

22) 2인 이상의 과거 응시자가 하나의 동아리를 이루어 과장에 함께 입장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의논하고 조력하면서 함께 과문을 지어내는 행위를 ‘공동제술’이라고 하며 ‘同接’은 그 동아리를 말한다. 김동석(2021), 278면.

23) 김동석(2021), 238면 표1 참조.

⑤ 방방 단계: 제문 절취, 합격자 바꿈

첫째,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과거 운용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폐인 ‘국왕의 자의적 시취’가 드러난다. 『記聞叢話』 184~186화에서는 성종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시정을 微行하다가 50세가 넘도록 과거 급제하지 못한 유생 2명을 만난다. 한 명은, 성종이 그의 실력을 알아보고 일부러 별과를 설행하여 그 유생이 썼던 시제를 출제한다(184화). 그러나 유생은 성종이 하사한 쌀과 고기를 먹고 병이 나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 또 다른 한 명은, 과거 급제에 대한 염원 때문에 집 남쪽에 나무를 심고 까치가 그 위에 집을 짓기를 기다린다. 성종은 그 유생을 가엾게 여겨 ‘人鵲’이라는 시제로 별과를 설행한다(185화). 두 담화에서 국왕이 자의적으로 과거를 시행하고, 합격자를 염두에 두어 시제를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담화에서는 과폐로서 이 일화를 다루지 않고, 성종의 은혜를 부각하고, 결과를 떠나 시험의 당락은 운에 좌우된다는 점을 전달하려고 했다.²⁴⁾

186화에서는 성종이 꿈에서 예언을 받고 석회장수 李石을 과거에 급제시킨다. 이 일화에서 이석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응시장에서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 아버지가 예전에 공부하던 내용을 답안으로 제출할 수 있었다. 국왕이 자의적으로 과거를 설행했을 뿐 아니라 이석이 스스로 짓지 않은 답안으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은 부정행위다. 그러나 이 담화는 과폐를 비판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국왕의 은혜로움과 오래 공부했던 아버지의 노력이 결국은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석은 자기 실력으로 급제하지 않았지만, 급제 후에 글공부에 열중하였고, 벼슬을 제수받을

24)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於野談』 소재 과거담에 비해 작자의 논평이 부기되는 경우가 드문데, 184화에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유생에 대해서는 “由是觀之, 豈非命數也?”, 185화에서 과거에 급제한 유생에 대해서는 “此亦會時而然矣.”라고 평하고 있다.

수 있었다.

둘째,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준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폐인 ‘무능한 시관’과 ‘시제 바꿈’의 모습이 드러난다. 149화에서는 1652년 사간원 정언이었던 鄭斗卿(1597~1673)이 당시 과시에서 낙방한 답안지를 보며 시관인 蔡裕後(1599~1660)에게 급제자를 잘못 뽑는다고 기롱한다. 412화에서는 1654년 明經科에서 甲科로 급제한 呂聖齊(1625~1691)가 시제가 바뀐 덕에 급제할 수 있었던 사연이 나온다. 두 일화는 모두 요행으로 과거 급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발한 답안지도 낙방할 수 있다는 것, 과거 시험장에서 얼마든지 시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149화에서 정두경과 채유후의 대화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웃어 넘겼다는 사실에서,²⁵⁾ 이러한 대화는 당시 시관들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412화에서는 시관이 시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온 여성제가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제를 바꾼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공정한 시험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응시장에서 본 시제가 친구가 지었던 시제임을 알고, 시관에게 시제를 바꿔달라고 한 朴忠侃(?~1601)의 사례(54화) 또한 청렴했던 유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과폐를 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셋째,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응시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폐인 ‘훔쳐 보기’와 ‘대작’의 모습이 드러난다. 132화에서 李明漢(1595~1645)이 자기가 공부한 시제가 나오자 답안을 다 작성한 뒤, 같이 공부했던 친구 鄭弘溟(1592~1650)과 李行遠(1592~1648)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답안에

25) 『記聞叢話』 권1 149화. “蔡湖州裕後, 字伯昌, 與鄭東溟斗卿, 入試院, 東溟爲正言, 不干校考, 而時見落幅, 則必稱奇, 蓋譏誤考也. 蔡頗苦之曰: ‘吾雖不文, 忝主文柄, 君雖文章, 職是臺諫, 不宜越俎.’ 東溟大怒, 自拔其鬚, 而大呼曰: ‘伯昌乎! 爾偶讀東策登第, 主文章耳, 吾視爾文衡有同腐鼠, 何敢嚇我乎?’ 蔡卽笑而解之, 因呼酒以勸請賦詩, 時當十月, 雷雨大作, 而科則式年會試也. 卽拔筆書之.”

대한 힌트를 준다. 그러나 정홍명과 이행원은 답안을 베꼈다는 혐의를 입을까 오히려 이명환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답안을 작성한다. 604화에서는 농간을 부려 큰 벌을 받았던 관원의 사례를 보고, 더 이상 농간을 부리지 않게 된 김 아무개의 사연이 나온다. 이 일화에서 “弄奸”이란 “승정원의 아전 아무개를 심복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몰래 글자나 표시를 하게 하는 [與政院吏某甲結心腹, 使密識字標]” 것을 말한다. 이는 1672년의 과폐를 암시하지만, 『記聞叢話』에서는 그것의 문제를 고발하거나 풍자하기보다 과장에서 농간을 부리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강조한다.

584화에서는 姜希孟(1424~1483)과 成倪(1439~1504)이 강희맹의 아들인 姜龜孫(1450~1505)의 重試 책문을 대신 써주고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장의 안목이 높은 金守溫(1410~1481)은 강귀손의 책문을 보고 강희맹과 성현이 대신 써준 것을 알아차리고는 강귀손에게 장원이 아닌 次上을 주었다. 이 일화 또한 과거에서 대작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김수온의 안목을 부각하고 대작임이 밝혀진 답안지에 장원을 주지 않으므로써 그의 청렴함도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넷째,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고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폐인 ‘성적 조작’의 모습이 드러난다. 327화에서 朴彌渭(?~?)는 1699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결과를 아내가 의심한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박필위는 1699년 11월에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았고,²⁶⁾ 다음 달에 아버지 朴泰晦(?~?)가 당시 會試의 시관이었던 홍수우, 오석하에게 자기 아들의 답안지를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바꾸도록 청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²⁷⁾ 이 일로 박태회는 옥에 갇혔고 박필위는 경상도 금갑도로 유배를 갔다. 그러나 『記聞

26)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기묘(1699) 11월 5일 두 번째 기사.

27) 『숙종실록』 권33, 숙종 25년 기묘(1699) 12월 30일 세 번째 기사.

叢話』에서는 그 전말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기보다 박필위가 성적조작으로 급제했다는 것을 알아본 아내의 식견을 칭송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⁸⁾

『記聞叢話』소재 과거담에서는 당대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기보다, 바람직한 수험생, 응시자, 주변인, 시관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강하다. 19세기에 편저된 야담집임에도 당시 과폐에 대한 비판보다는, 과폐를 경계하는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준다. 설사 과거에서 공정성이 문제되더라도, 이는 추후 노력을 한다거나 잘못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쉽게 해소된다. 이 때문인지 『記聞叢話』에서 유일하게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과거제에 대해 개괄한 127화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封彌法과 兩頭場을 다루었다.²⁹⁾

이 일화는 서거정의 『筆苑雜記』 권1에서 전승된 것인데, 『筆苑雜記』에서는 시험 절차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記聞叢話』 127화에서는 앞뒤의 내용만 발췌하였다.³⁰⁾ 봉미와 양두장은 과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는 응시자들의 부정과 권력층의 부정이 결합되어 그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³¹⁾ 역시도 19세기에 효용성을 잃어서 폐지되었다.³²⁾ 이미 과시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28) 『記聞叢話』 권4 327화. “朴弼渭者，南溪世采之孫也。己卯登第時，其父泰梅，作樂無數。而其妻金氏，大司諫洪福之女也，獨有憂色，泰梅曰：‘吾家有慶，而汝何獨憂？’婦曰：‘少小見家親，積工十餘年，乃登第，今吾郎未嘗見其讀書，而忽有此事，非福伊災，安得不憂？’未幾，果發覺換秘封事，其知識如此云。”

29) 봉미법이란 누구의 시험지인지 알아볼 수 없게 이름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30) 『記聞叢話』 권1 127화. “高麗文宗時，禮部尙書鄭惟敬，立糊名取士之法，凡赴試諸生，卷首書姓名本貫四祖糊封，試前數日呈院。其後，國朝科擧之法漸備，糊名卷首與高麗同，其收卷官、封彌官、枝同官、易寫等事，皆遵元朝制。兩頭場，始於世宗朝，或講經，或製述，隨時不同。”

31) 박현순(2014), 218면.

32) 『순조실록』 권30, 순조 28년 무자(1828) 4월 22일 두 번째 기사. 易書란, 응시자의 필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답안을 베껴서 채점하던 제도를 말한다.

이 그 효과를 잃어가고 있던 시기에 이에 대한 개괄을 『記聞叢話』에서 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記聞叢話』는 당대 과폐를 고발하고 비판하기보다 과거 제 운용의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교훈성을 강조했다 할 수 있다.

(2) 기이한 체험과 예언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등장 인물이 기이한 체험을 통해 과거 급제와 관련한 예언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체험’이란, 과거 급제를 예언하는 비현실적인 경험이나 꿈을 꾸는 일을 말한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 70편 중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보여주는 과거담은 총 26편으로 주로 16~17세기에 벌어진 일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야담에서는 꿈 모티프를 이용해 작중 인물의 본능적 욕망이나 간절한 바람 등을 보여주는 서사가 많이 등장한다.³³⁾ 과거담에서도 급제자의 이름과 관련된 일화나 과거 급제를 상징하는 동물이 꿈에 등장하는 일화가 나온다.

41화에서는 김홍도의 아버지 김노가 아들의 이름을 ‘歸甲’으로 지어주라는 꿈속 예언을 받는다.³⁴⁾ 그리하여 ‘歸甲’은 김홍도의 어릴 적 이름이 된다. 이름 그대로 김홍도는 1548년 문과에 장원 급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557년에 윤개와 권찬의 모함을 받아 甲山으로 귀양간다.³⁵⁾ 꿈에서 받은 이름이 김홍도의 앞날을 예언한 것이다. 496화에서는 어떤 사람의 꿈에 1560년 별시에서 1~3등을 차지할 사람들이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다.³⁶⁾

33) 이강옥(2013), 62면.

34) 『記聞叢話』 권1 41화. “金典翰弘度初生, 其考僉知魯, 夢有人使命, 其名曰‘歸甲’.”

35) 김홍도가 윤개와 권찬을 받아 귀양 간 사실은 『명종실록』 권22, 명종 12년 정사(1557) 5월 22일 세 번째 기사;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 정사(1557) 6월 10일 두 번째 기사 참조.

민덕봉의 ‘鳳’과 구봉령의 ‘鳳’, 정염의 ‘焰’을 따서, 봉황 두 마리가 하늘을 날고 그 꼬리가 불타고 있는 꿈이었다. 또한, 1584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민몽룡은 시험을 앞두고 대나무숲에서 호랑이가 뛰어오르는 꿈을 꾸다. 이 또한 한자 ‘대나무[竹]’와 ‘호랑이[虎]’가 이름에 있는 ‘朴簍’가 장원을 하고, 민몽룡은 그 호랑이의 꼬리를 잡았기에 말석으로 급제한다는 예언이었던 것이다. 520화에서는 1408년에 시관이었던 정이오가 꿈에서 문과에 급제한 어변갑과 무과에 급제한 마희성의 이름이 들어간 시를 꿈에서 얻는다.³⁷⁾ 이처럼 『記聞叢話』에서는 과거 급제자를 예언하는 꿈을 보여줄 때 그의 ‘이름’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

이밖에 꿈속 동물의 출현으로 과거 급제를 예언하는 경우도 많다. 꿈속 호랑이와 용의 등장은 과거 급제를 상징한다.³⁸⁾ 한문학 작품에 나타난 호랑이는 주로 惡獸, 靈物로 형상화되는데³⁹⁾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꿈속 호랑이가 과거 급제를 예언하는 영험한 존재로 등장했다. 과거 급제와 관련하여 특히 자주 출현하는 동물은 바로 ‘용’이다. 과거 급제를 ‘용문에 오르다[登龍門]’로 표현한 것은 한문학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용문은 하수의 아래 입구로, 지금의 강주 용문현이며, 물이 험하고 좁아서 물고기와 자라의

36) 『記聞叢話』 권4 496화. “明廟庚申, 人有夢, 兩鳳升空, 火燒其尾, 而其年別試, 閔德鳳爲魁, 具鳳齡爲第二, 丁焰爲第三. 宣廟甲申, 閔夢龍夢, 竹林中有虎騰躍, 已乃提其尾. 及登第, 已占榜末, 而朴簍爲壯元.”

37) 『記聞叢話』 권4 520화. “鄭郊隱以吾, 以主試赴院, 夢得一詩曰: ‘三級風雷魚變甲, 一春烟景馬希聲. 雖云對偶元相敵, 那及龍門上客名.’ 榜出, 魚果文壯元, 馬果武壯元.”

38) 『記聞叢話』 권4 348화. “李東洲敏求, 少時, 與李如璜、趙休, 同棲山房讀書. 一日, 老僧來言, ‘吉祥見矣. 夜夢, 雄虎雌虎, 率一孩虎入此房, 僉秀才必皆登科矣.’ 東洲先曰: ‘雄虎我也,’ 如璜曰: ‘雌虎我也.’ 休曰: ‘孩虎我也.’ 相與嘲謔. 其後, 東洲爲壯元, 璜亦登科, 休久而未第, 徒得孩虎之名.”

39) 이동재(2014), 125~160면; 윤세순(2015), 61~93면. 윤세순은 박지원의 『虎叱』에 나타난 호랑이의 형상을 한정적으로 연구했으므로, 한문산문에 나타난 호랑이의 형상화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강과 바다로 오를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문학 작품에서 ‘용문에 오르는 일’은 몹시 힘든 일을 해내어 영광을 얻은 것에 비유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과거 급제다.⁴⁰⁾ 즉, 425화는 꿈속 ‘魚躍龍門’을 통해 김육의 과거 급제를 예언한 사례다. 용문에 오르는 것이 크게 성공하고 출세함을 가리키듯,⁴¹⁾ 535화에서도 용머리가 용이 되어 승천한 것은 과거 급제를 상징한다.⁴²⁾

꿈속 ‘용’의 등장이 과거 급제와 관련됨은 다른 일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앞에서 말한 급제자의 ‘이름’과 연결되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담에서 꿈속 예언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인들의 과거에 대한 열망과 욕망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서사가 길지 않고 짧은 이야기 속에서 꿈속 예언을 삽입한 것은, 기이한 체험이라는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흥미로움을 얻기보다는, 과거 급제자의 급제 사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이다.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보여주는 일화들은, 특정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과정을 부각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 즉 누군가의 과거 급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술된다. 이는 이미 벌어진 일을 과거의 재구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⁴³⁾

40) 『後漢書』 권67 『李膺列傳』 참조. 당대 사대부들이 명망이 높은 李膺의 접견을 받는 것을 ‘용문에 올랐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登龍門이 한문학 작품에 활용된 사례들은 고연희(2016), 54~63면에 자세히 다룬다.

41) 『記聞叢話』 권4 425화. “一日, 公夢一人狀貌異常, 來告公曰: ‘吾乃池中魚, 明日, 當變化升天, 願公勿驚, 必避之.’ 既覺異之, 徙家待之, 其日午後, 白晝暴雨雷轟, 有一龍起於池中, 玄雲擁之, 飛騰而去. (중략) 其翌日, 卽反正庭試也, 公就試, 果占壯元, 若可異也.”

42) 『記聞叢話』 권4 535화. “尹相國趾善, 相國趾完兄弟, 同榜登科. 科前, 宗室綾溪守汲言, ‘今科尹某兄弟必登科.’ 尋果然, 尹問其預知之由曰: ‘室婦夢云, 義禁府門外, 有老竿二條立門, 兩竿上皆刻龍頭. 問是誰家竿, 有人答曰, 此吏判宅嚙竿. 仍仰看之, 兩竿所刻龍頭, 皆化眞龍, 沖天而去.’ 吏判, 卽尹大人絳也.”

43) 황인순(2013)은 『記聞叢話』 소재 ‘예견담’이 과거에 드러난 실마리를 토대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현재의 지식과 콘텍스트를 통해 당위를 확보하기 위한

『記聞叢話』 소재 점쟁이나 異人, 기생을 만나 과거 급제에 대한 예언을 듣는 일화에서도(413·414·458·512·609화) 주인공의 과거 급제를 단언하는 사람들의 언급은 주요 인물의 기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력에 대한 당위성을 얻고자 삽입되었다. 이를 방증하는 예시 중 하나는, 작품의 편폭이 길며 기승전결을 갖춘 일화에서는 허구 인물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205·252·452화). 대표적으로 205화를 보자.

- ① 선비의 여자 염탐
- ② 선비의 의로운 행동: 중을 죽임
- ③ 靑袍儒生의 소원
- ④ 문제 해결
 - ④-1 청포유생의 시신을 그 아버지에게 알림
 - ④-2 중의 시체를 드러나게 함
 - ④-3 여자가 벌을 받음
- ⑤ 선비가 보은을 받음: 과거 문제 예언
- ⑥ 운이 좋아 급제함⁴⁴⁾

목적적 가졌다고 말했다. 황인순(2013), 457면.

- 44) 『記聞叢話』 권2 205화. “[1] 有一儒生, 投筆而業武藝, 習射於慕華館, 夕陽時罷歸, 有一內行, 駕轎而來, 後無陪行, 只有一童婢隨來, 而頗研美. 儒生見而欲之, 腰矢肩弓而隨, 或前或後, 風吹簾捲, 瞥見轎內, 女人素服而坐, 真國色也. 儒生神情恍惚, 心內暗忖, 此是誰家女子, 而獨向何處? 第隨往而探知其家. 仍隨後而行. 遵大路入新門, 轉向南村某洞一大第而入. 儒生彷徨門外, 日勢已暮, 仍轉向店舍買食, 而帶弓矢, 周察其家前後, 無可闖入處. 其家後畝, 依一小阜而不高, 乃登阜而俯視, 則其畝內有花園, 叢竹菴密, 可以隱身. 乃帶月色, 踰後牆田園而下, 則其下即渠家後面, 而東西兩房, 燈火熒然, 照後雙窓. 仍往其窓下, 潛窺東房, 則有一老嫗依於枕上, 而俄者所見之女子, 侍坐獨診冊於燈下, 聲音琅琅如碎玉, 儒生暗伏於窓下, 而以窓隙窺見而已. 少間, 老嫗謂其女子曰: ‘今日似必困德, 可歸汝房休息.’ 其女子承命, 而退歸西房, 儒生自外又往西邊窓外, 窺見, 則女子喚童婢, 謂曰: ‘行役之餘, 汝亦困憊矣, 可出宿於汝母家, 明朝早來.’ 童婢出門, 女子起而閉上窓

戶，儒生暗喜曰：‘此女既已獨宿，吾當乘間窺入可也云。’而屏氣息跡窺見，則其女子開籠，而出鋪錦衾，吸烟茶，而坐燈下若有所思想者然，儒生心竊訝之。②少焉，後園竹枝有聲，若有人跡，儒生驚怯，而隱身以避而見之，則一禿頭和尚，披竹林而來，叩後窓，自內開窓而迎之。儒生隨其後，而從窓隙窺見，則其和尚摟抱其女子，淫戲無所不至。已而，其女因起，向于桌上，拿下酒壺饌盒，滿酌而勸之，和尚一吸而盡，笑問曰：‘今日墓行，果有悲懷否？’女子含笑曰：‘惟汝在吾，何悲懷？且是虛葬之地，亦有何悲懷之可言乎？’又與僧一場淫戲，而裸體同入衾中，相抱而臥。此時，儒生初來欲奸之心，雲消霧散，而憤慨之心倍激矣。仍彎弓注矢，從窓戶滿的射去，正中和尚之禿頭，頂門上插去。女子驚起戰慄，急以衾裏僧之尸，置之樓上。儒生細察其動靜，更踰後牆而出來。③時已漏罷矣，仍爲還家。其夜似夢非夢間，有一青袍儒生，年可十八九，來拜於前曰：‘感君之報讐，是以來謝。’儒生驚而問曰：‘君是何許人，而所仇何許人？吾無爲君報仇之事，何爲來謝？’其人掩抑而對曰：‘某乃某洞某宰之子也。讀書于山寺時，使主人僧，持粮饌往來吾家中矣，淫婦見而欲之，遂與通奸矣。某於歸親之路，此僧同行，到無人之地，蹴吾殺之，以尸體置之於山下巖穴者，于今三年矣。某既冤死，而無以報仇雪恨矣。昨夜，君之所射殺者，卽其僧也，其女子，卽吾之內也。此仇已雪，感謝無地。又有一事奉托者，君須往見吾父親，告吾之尸體所在處，使之移遷，則恩尤大矣。’言訖，而忽不知去向。儒生驚覺，則一夢也。心甚異之。④-1翌日，更往其家，通刺而入，則有一老宰起迎坐定，儒生問曰：‘子弟有幾人？’主人揮淚而言曰：‘老夫命途奇窮，無他子女，五十後，僅生一兒子，愛如掌玉，成婚後，往山寺課工，爲虎所嚙去，終祥未過矣。’儒生曰：‘小生有一疑訝事，第隨我而訪屍身所在處，可乎？’主人大驚痛曰：‘君何由知之？’對曰：‘第往見之，可也。’主人卽具鞍馬，與之同行，至其寺，下馬登山，由寺後行幾步，有巖石而通穴，以土石塞其口。使下隸去其土石，而以手探之，則有一屍體出，而見之果是其子，而顏色依舊。其老宰抱尸而哭，幾絕而甦，仍向其儒生，而問曰：‘汝何由知之？此必是汝之所爲也。’其儒生笑曰：‘吾若行兇，則何可見公而道之乎？第爲治喪而歸，問其由於令子婦，其房樓上有一物之可證者，公須速行之！’④-2其老宰一邊運屍，安于僧舍之內，使辦喪需而歸家，直入子婦房，問曰：‘吾有朝服之置於汝樓上矣，吾可出而見之，須開樓門！’其子婦慌忙色變，而對曰：‘此則兄當出來，何須尊舅之親搜也云。’而氣色頗殊常。老宰仍向樓，開鎖而入樓，則有穢惡之臭，搜至籠後，有一衾裏物者，出而置之於房內，則卽一少年胖大和尚之屍，而挿箭於頂門之上矣。老宰問曰：‘此何爲也？’其子婦面如土色，戰慄不敢對。④-3仍出請其父與兄，道此事而聽之，其父以刀割，而殺之云矣，仍改葬其子之屍於先山之下矣。⑤一夜，其儒生又於似夢非夢之間，其少年又來，百拜致謝曰：‘君之恩無以酬之，今科期不遠，而場內所出之題，卽吾之平日所做之文。吾可誦傳之，君須書之，入場後呈券，則必做第矣。’仍誦傳一首賦，題是‘秋風悔心萌也。’其儒生受而書之矣。⑤數日後，科期已迫入場，則果出此題矣。仍書其賦而呈券，至‘秋風颯兮夕起，玉宇廊而崢嶸’之句，‘秋’字誤換書以‘金’字矣。時竹泉金公鎮圭，以主試，見此券曰：‘此賦果是善作，而似是鬼神之作，無乃欲試吾輩試鑑之故耶云矣。’讀至‘金風颯兮夕起’之句，笑曰：‘此非鬼神之作！’乃擢第一。人問其故，竹泉答曰：‘鬼神忌金，若鬼神作，則必不書金字也，故知非鬼作云矣。’榜出其儒生居魁，其姓名考之科榜，則可知爲誰某，而

205화는 『溪西雜錄』에도 실린 일화가 그대로 『記聞叢話』에 전송된 것이다. 이 일화는 무예만 익히던 한 선비가 보은을 받아 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 기이한 체험이나 예언이 등장하는 일화는 실존 인물의 과거 급제를 예언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제시된 데 비해, 205화는 미상의 인물이 과거에 급제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는, 예언을 통해 주요 인물이 과거 급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물과 점쟁이, 이인, 기생이 어떻게 만났는지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주요 인물들은 우연히 점쟁이 땀인을 만나 운명을 점쳐보라고 시키거나(413화), 큰 잔치에서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는 기생을 만난다(414화). 그러나 205화에서는 선비가 여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서사가 지나치게 연장되고 있다.⁴⁵⁾ 선비가 활쏘기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가마를 쫓아가는 계집종이 예뻐 그녀를 뒤쫓아 가는데, 그 과정에서 가마에 처놓은 발이 걸히자 선비는 가마 안에 있는 여인에게 반하게 된다.

선비가 여인을 마주하기까지 시간도 세 차례나 연장된다. 처음에는 여인의 정체를 몰라 망설였고, 그 다음에는 여인이 머무는 방으로 들어갈 문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방에 중이 찾아와 둘이 음란한 행각을 벌이느라 선비는 여인을 간음하려던 생각을 지우고 오히려 분개하며 중의 머리에 화살을 쏘아 죽인다. 여인은 놀라 당황한 나머지 시체를 이불로 싸서 다락에 넣는다.

기이한 체험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선비 앞에 푸른 도포를 입은 유생

未及考見.”

45) ‘서사의 연장[stretch]’이란 서술상의 시간과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과의 관계를 뜻하는 개념 중 하나로, 서술의 속도를 늦추어 분해된 시간의 작은 단위까지 세밀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한용환(2009), 320~322면.

[靑袍儒生]이 나타나 아내의 불륜과 계략으로 자신이 죽고 그 시체가 산 아래 바위굴에 버려져 있음을 토로한다. 선비는 청포유생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고, 그 대가로 과거에 나올 시제를 받는다. 선비가 청포유생의 환영을 보고, 또 그의 시체를 그의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여인이 숨긴 중의 시체가 발각되어 여인이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갈등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서사의 연장을 통해 긴장감과 흥미성을 높인다. 게다가 선비는 청포유생이 알려준 시제로 쉽게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로 글자 하나를 잘못 쓴 덕에 장원에 급제한다. 마지막까지 문제의 상황을 쉽게 해소하거나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 중에서도 허구 인물 혹은 미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일화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 壯元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

과거담에서 해당 인물의 壯元 급제 여부가 나오는 것은, 인물의 이력이나 과거 공부의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는 장원 급제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을 보이는 일화가 다수 등장한다. 이는 『於野談』과 『靑邱野談』 소재 과거담과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를 보인다.

식년시 문과 전시에서 과거 합격자는 총 33명인데, 성적 순으로 甲科 3명, 乙科 7명, 丙科 23명을 뽑는다. 갑과 3명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가 바로 장원이다. 『經國大典』 권1 吏典 諸科에 따르면, 문과 장원은 종6품의 관직을 제수받고 나머지 갑과 급제자는 정7품의 관직을 제수받는다. 을과는 정8품의 품계를, 병과는 정9품의 품계를 받는다.⁴⁶⁾ 갑과 3명에게만 實職을

46) 『經國大典』 권1 「吏典 諸科」, “文科甲科第一人授從六品, 餘正七品, 乙科正八品階, 丙

주고 나머지 급제자들은 四館에 분속하여 權知를 시켰다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관직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⁴⁷⁾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시가 자주 열려 分館되는 합격자는 많은 데 비해 분관인의 거관은 1년에 3~4인밖에 되지 않아 10년이 지나도록 권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⁴⁸⁾

장원 급제자는 실직을 받을 뿐 아니라 參下官을 거치지 않고 參上官으로 바로 관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료들보다 오랜 기간을 면제받는 셈이다. 그러므로 수험생에게 장원이란 가문의 명예일 뿐 아니라 출사에서 도 탄탄대로를 보장해주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장원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記聞叢話』 뿐 아니라 『於于野談』이나 『靑邱野談』에서도 ‘장원 급제’에 대한 언급은 해당 인물의 뛰어난 점을 강조하거나, 수험생이 과거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극적인 결말을 나타낼 때 활용된다. 그러나 세 야담집에서 장원 급제를 다루는 이유는 차이가 있다. 『於于野談』에서는 당대 과패를 비판하기 위해서 장원 급제를 언급한다(333·343·344·383화). 특히 333화에서는 시관들이 임의로 장원 급제자를 뽑는 16세기 과패를 지적했다. 『靑邱野談』에서는 장원 급제를 주요 사건 및 주제로 삼은 일화는 없었다. 이와 달리 『記聞叢話』에서는 개별자 혹은 집안의 장원 급제 사실을 명예롭게 인식한 일화가 다수 등장한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 장원 급제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화는 총 5편이다. 20화와 618화에서는 각각 1585년 朴淳(1523~1589), 盧守愼(1515~1590), 鄭惟吉(1515~1588) 등이, 1469년에 蔡壽(1449~1515)가 장원 급제한 이력이 있는 사위들과 “龍頭會”라는 계를 만들었던 사실이 나타나 있다. 같은 과거에 합격한 자들이 친밀한 모임을 만들고 同年錄을

科正九品階.”

47) 김동석(2021), 79면.

48) 김동석(2021), 79면.

만들었던 문화나, 장원급제자들끼리 同年會를 열어 명망을 과시하던 문화는 고려 시대부터 있어 왔다.⁴⁹⁾ 특히 618화에서는 채수와 그의 넷째 사위 李耜(1480~1533), 다섯째 사위 金安老(1481~1537)도 모두 장원 급제자 출신으로 용두회를 열었는데, 첫째 사위 金勳(1466~1509)은 1489년에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용두회에서 제외되었다. 김감이를 아쉬워해 35세에 일찍 대제학의 자리에 오른 사실을 내세워 용두회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만큼 용두회를 구성하는 장원 급제자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8화에서는 조선시대에 각종 과시에서 세 번 장원한 사람들을 나열했다. 129화에서는 1450년에 향시·회시·전시에서 모두 장원한 權攄(1416~1465)을 언급하면서, 향시·회시·전시에서 모두 말석으로 합격한 군수 金洙光(?~?)을 특이한 사례로 소개한다. 528화에서는 趙錫胤(1606~1655)과 같은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장원 급제자를 찾아가는 전례를 보여주면서, 합격자 중 하나인 어느 연장자가 오래도록 꿈에서 장원 급제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것이 조석윤의 얼굴이었음을 말하는 일화가 나온다. 이처럼 장원 급제자는 같은 시험의 합격자들 사이에서 대단하고 영광스런 인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 장원 급제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일화는 총 3편이다. 130화에서는 金安國(1478~1543)이 아쉽게도 장원을 하지 못해(1503년), 자신이 시관이 되었을 때는 공들여 채점한 사례가 나온다(1513년). 131화에서는 장원 급제하지 못한 金駟孫(1464~1498)이 평소에도 그 아쉬움이 커서, 시관으로 있을 때 2등을 차지한 남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사례가 등장한다. 김일손은 1486년 생원시에서 장원을 차지했지만

49) 이성무(2004), 96면.

(150화) 같은 해 식년시에서는 2등을 한다. 이는 『於于野談』에서 김일손이 2등으로 급제한 朴光佑(1495~1545)에게 소동과, 남곤도 모두 2등으로 급제했다고 말하면서 위로하는 일화로 나온다(344화). 이 일화는 『於于野談』에서 문과 급제 뒤 新來와 관련한 풍습을 나열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데 비해, 『記聞叢話』에서는 2등으로 급제한 김일손의 아쉬움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

584화는 강희맹이 아들인 강귀손의 장원을 위해 성현과 합작하여 책문을 지어준 일화다. 김수온이 이를 알아보고 강귀손의 책문을 장원으로 뽑지 않는다. 584화에서 강희맹이 사돈인 성현에게 “우리 집안에서 연달아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 또한 성사입니다. 그러니 사돈과 더불어 우리 귀손이의 책문을 대신 써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吾家連科, 亦盛事也, 盍與君代作龜孫之策乎?]”⁵⁰⁾라고 말한다. 강희맹은 1447년 친시 문과에 장원 급제했고, 강귀손은 1479년에 별시 병과로 급제했다. 584화에서 말하는 ‘과거[科]’는 1486년에 시행된 重試로,⁵¹⁾ 강희맹이 집안의 경사로 생각하는 ‘連科’란 바로 중시에서의 장원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전기(태조~명종대) 성관별 장원 배출 인원을 보면, 강희맹의 집안인 진주 강씨가 총 7명으로, 안동 권씨(11명) 다음으로 많았다.⁵²⁾ 강희맹의 집안은 명문거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원에 대한 집착이 높았을 것이고, 이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아들이 중시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於于野談』에서 ‘장원 급제’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거나 수험생의 극적인 시험 결과, 혹은 인과응보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한다. 장원 급제에 대해 특별히 자부심을 느끼거나, 이에 대해 집착하는 사례는 들어있지 않다.

50) 『記聞叢話』 권4, 584화.

51) 관직에 나가지 못한 문과 합격자나 당하관 관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52) 최진옥(2000), 134면.

이는 『記聞叢話』보다 후대에 편저된 『靑邱野談』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원 급제자는 다른 급제자들에 비해 요직을 더 일찍 차지할 수 있다는 실질적 특권 뿐 아니라, 장원으로 뽑혔다는 것 자체로도 당대에 큰 명예를 얻었다. 그렇다면 『記聞叢話』에 나타난 장원 급제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은 당대 과거 관련 문화를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시가 증가하면서 수적으로 장원 급제자도 많아졌으며, 직부전시가 늘어나면서 다른 방식으로 특별 계층이 생성되면서 장원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도 줄어들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렇게 본다면 19세기에 편저된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 장원 급제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이 드러나는 것은, 시대적 수요나 욕망을 반영했다기보다, 그 이전 세대의 욕망과 바람을 기록하여 전하려는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 중에서 장원 급제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이 드러나는 일화가 조선 전기에 집중된 것도, 이러한 면모가 조선 후기보다는 조선 전기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후대에는 과시 설행이 증가하면서 특별히 장원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었지만, 이전 세대의 일화를 다시 기록하고 전승하면서 특정 계층에 편입되고자 하는 열망이 『記聞叢話』에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원에 대한 일화가 사회를 비판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자궁심(20·128·129·618화)과 동기 부여(130·131화)로 포장되고 있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記聞叢話』에 실린 과거담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문헌에 실린 과거 관련 사실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야담을 선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담화 수가 가장 많고, 넓은 범위의 야담을

집대성하여 야담에 나타난 과거담의 전모를 살피기에 유리한 『記聞叢話』를 대상으로 하였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총 70편이다. 이는 주로 15~17세기 수험생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였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일화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일화다. 『記聞叢話』에서는 사회 제도가 악용된 사례와 당대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일화가 실렸다(9·12화). 그러나 19세기에 편저되었으리라 추정되는 『記聞叢話』는 당대 과폐를 고발하여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일화의 수가 극히 적고, 오히려 과폐를 통해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고 당시 시관의 안목과 청렴함을 부각시키는 일화가 많다. 이러한 일화는 또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결말이 많아, 교훈적 성격도 지닌다. 즉,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은 사회 비판보다는 과거제 운용의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교훈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보여주는 일화다. 야담에서는 정사에 실리지 못한 그 이외의 이야기, 즉 비현실적인 체험이나, 꿈속 예언 등을 보여준다.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꿈속에서 합격자의 이름을 예언하거나, 과거 합격을 가리키는 동물이 등장한다.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것도 있다. 야담에서의 기이성은 그것 자체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는 이미 과거에 합격한 실존 인물과 관련된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서술하여 그 인물의 현달함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적게는, 기이한 체험과 예언을 보여주면서 기승전결과 서사의 연장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일화도 있지만, 그러한 일화들은 허구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담화의 목적을 과거담과 달리하였다.

셋째, 장원에 대한 자부심과 집착을 보여주는 일화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이 되면 남들보다 일찍 요직에 오를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나 가문으로서

명망이 높아졌다. 따라서 장원한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계모임을 갖거나, 2등을 하여 평생 아쉬움을 드러내는 일은 당대 분위기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에서는 이러한 일화가 조선 전기를 배경으로 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거나 서사의 긴장감과 흥미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지는 않았다. 19세기에는 별시로 인재를 뽑는 경우가 많아져 조선 전기보다 장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음을 감안한다면,⁵³⁾ 『記聞叢話』에 등장한 장원과 관련한 일화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특권계층에 편입되고픈 당대 사람들의 열망과 바람이 반영되어 장원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 부여 측면을 과거담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記聞叢話』는 많은 담화 수와 다양한 야담집을 집대성하여 과거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편저자 미상으로 그 담화 구성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야담집에서의 과거담을 비교 분석하여 『記聞叢話』 소재 과거담만이 가지는 특징과 위상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은 추후에 보충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석중(1999), 『韓國 科賦의 展開 樣相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145면.
 고연희(2016), 「『魚躍龍門』에서 ‘魚變成龍’으로-‘及第’에서 ‘忠’으로-」, 『한국문화연구』 3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54~63면.
 권기성(2019), 「야담에 나타난 조선후기 과거문제의 현실과 대안적 상상력-법과 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161~196면.

53) 심수경, 『遺閑雜錄』. “高麗時, 每榜壯元及第者, 設龍頭會, 一時歆艷. (중략) 我朝不設此會久矣, 如余不才, 或有幸得者, 故壯元之名, 人不以爲貴.” 심수경은 75세 이후(1591년)에 이 저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언급은 19세기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중후기에 장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경(2021a),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 一考-『科賦抄』所在 <醉翁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149~180면.
- 김경(2021b),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161~191면.
- 김경(2022), 「『於野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해석』 38,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회, 268~272면.
- 김광년(2020),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令』 研究」,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129~159면.
- 김광년(2022),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문고전연구』 45, 한국한문고전학회, 187~209면.
- 김동석(2021), 『조선시대 선비의 과거와 시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79~278면.
- 김동욱(1998), 「『기문총화』 이야기와 조선후기 몰락양반층의 향방」, 『반교어문연구』 9, 반교어문학회, 241~266면.
- 김준형(1997), 「紀聞叢話系 野譚集의 文獻學的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128면.
- 노요한 외 3인(2022), 「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62, 근역한문학회, 7~66면.
- 박선이(2020), 「조선 후기 科文의 실체에 관한 일고찰-『東儷文』과 『儷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99~127면.
- 박선이(2021), 「조선 후기 策題와 출제 경향에 관한 일고찰-肅宗~正祖 시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93, 한민족어문학회, 361~394면.
- 박선이(2022), 「조선 후기 科試 참고서 表東人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62, 근역한문학회, 93~112면.
- 박재경(2013), 「策文으로 본 조선시대 과거사의 이면」,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149~156면.
- 박현순(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89~218면.
- 신익철(2010), 「『어우야담』의 서사방식과 초기 야담집으로서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33, 한국학중앙연구원, 10면.
- 심경호(2013),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365면.
- 심경호(2020),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10면.
- 윤선영(2019), 「조선 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344면.
- 윤세순(2015), 「한문소설에 나타난 주요 동물의 문학적 형상」, 『동방한문학』 62, 동방한

- 문학회, 61~93면.
- 이강옥(2013), 『야담의 꿈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과 반조』,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회, 62면.
- 이동재(2014), 『한국 한시에 나타난 호랑이의 형상화 양상 연구』, 『동방한문학』 61, 동방한문학회, 125~160면.
- 이병직(2013), 『『박소촌화』 所載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한국문학회, 57~86면.
- 이상옥(2015),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234면.
- 이상옥(2022a), 『삼연 김창흡 과시 고찰-17세기 조선 과시의 역사적 전개와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77, 열상고전연구회, 369~410면.
- 이상옥(2022b), 『조선후기 科賦 참고서와 공부 방법-『騷賦彙芳』과 『小大由之』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72, 대동한문학회, 5~40면.
- 이성무(2004),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 96면.
- 임완혁(2013), 『敘事文 속의 科擧 이야기: 窮乏한 儒生의 孤軍奮鬪記』,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199~228면.
- 전경목(2007),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修學과 과거 응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63~309면.
- 정환국(2021a), 『정본 한국 야담전집』 1, 보고서, 1~374면.
- 정환국(2021b), 『정본 한국 야담전집』 6, 보고서, 1~406면.
- 조좌호(1996),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432면.
- 진필상 저, 심경호 역(2001), 『한문문제론』, 이화, 130면.
- 차미희(2013), 『17세기 예안 사족 金垞과 과거시험』,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283~317면.
- 최은주(2013),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231~265면.
- 한용환(2009),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320~322면.
- 황인순(2013), 『예견담의 담화적 특성 연구-〈기문총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457면.
- 허홍식(1981),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1~621면.

Aspects and Features of the Stories o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Kimunchonghwa**

Lee, Mijin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Korea Univers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materials containing state examination-related data.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specific yadam. *Kimunchonghwa*, compil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the largest number of stories among yadams, and is suitable for examining the full picture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as it has compiled a wide range of yadams.

There are a total of 70 stories about the state examination. This was mainly based on what happened to students in the 15th to 17th centurie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state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tories,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of *Kimunchonghwa*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First, it is a story that criticiz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society. In *Kimunchonghwa*, there were stories criticizing the abuse of the social system and the absurdity of the time, but the number of stories was extremely small. *Kimunchonghwa*, compiled in the 19th century, has many stories that praise the king's virtue and highlight the insight and integrity of the examination supervisors at the time, rather than criticizing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2093644)

social structural contradictions by accusing the bad custom of the examinations of the time. In other words, *Kimunchonghwa*'s story of the state examination emphasized the morality by showing a desirable example of the operation of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rather than criticizing society.

Second, it is a story that shows strange experiences and prediction. In *Kimunchonghwa*'s story of the state examination, there are animals that predict the names of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state exam in their dreams. The strangeness of Yadam attracts the reader's interest, but *Kimunchonghwa*'s story of the state examination tried to show that the person's success was natural by describing strange experiences and prediction related to a real person who had already passed the exam.

Third, it is a story showing pride and obsession with being the first grade. Since the Korea Dynast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eople who have been in first grade regularly have gatherings or feel regret for life because they have been in second grade.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re were talents were selected through special examinations, and the status of the first grade was relatively lower tha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f so, it can be assumed that the stories related to the first grade in *Kimunchonghwa* reflected the wishes of those who want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rivileged class.

【Keywords】 *Kimunchonghwa*, Yadam, Storie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 Civil Service Examination

본 논문은 2023년 3월 6일 투고되어 2023년 3월 23일 심사를 완료하여 2023년 3월 27일에 게재를 확정하였음
